

# 저축은행 순이익 또 '사상 최대'

저축은행 당기순이익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자산건전성은 좋아지는 등 경영 상황이 개선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1185억원으로 전년(1조762억원) 대비 3.9%(423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순이익 1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순이익이 더욱 늘어나면서 또 다시 최대 실적을 거머쥐었다.

대출 확대에 따라 이자이익이 크게 늘어난 점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저축은행 이자이익은 4조1839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43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영업실적 발표...1조1185억원  
대출 확대로 이자이익 급증해 4000억 증가  
연체율 0.3%p↓...가계신용대출은 '상승'**

비이자이익이 1130억원 감소하고 대손충당금전입액이 1310억원 증가했지만 이자이익 확대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1303억원 늘었다.

순이익이 늘어난 동시에 자산규모도 크게 불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총자산은 69조5000억원으로 1년 만에 16.4%(9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자산 증가율은 2017년(14.1%)보다 2.3%포인트 높다.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셈이다.

총자산 가운데 저축은행 자기자

본은 7조8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조원(1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은 개선됐다.

지난해 총여신 연체율은 4.3%로 전년말(4.6%)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이 0.5%포인트 하락한 4.2%를 기록했다. PF대출 연체율이 1.5%포인트 떨어졌던 영향이다.

가계 연체율은 4.6%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은 0.1%포인트 하락했으나, 가계신용대출에서 0.2%포인트 높아졌다. 고정이자여신비율은 5.0%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전년보다 1.6%포인트 하락한 115.0%를 기록했다. 다만 모든 저축은행이 100% 이상을 충족해 양호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6%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자기자본 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을 뛰어넘은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영업규모가 확대되고 흑자시현이 지속되는 등 경영상황이 양호하다"며 "건전성 지표의 경우 타업권에 비해 여전히 미흡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뉴스스



## 대림산업, 윤활유 첨가제시장 본격 공략

대림산업이 고부가가치 윤활유 첨가제 시장에 진출한다.

대림산업은 19일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독자기술로 개발한 연간 5000t 규모의 윤활유 첨가제 생산시설을 준공했다. 투자비는 총 400억원으로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대림산업에서 생산하는 윤활유 첨가제의 브랜드는 '대림시놀'로 정해졌다.

기후로 윤활유 첨가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대림산업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연평균 4.3%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대림산업은 현재 미국과 한국의 대형 윤활유, 윤활유 첨가제 제조사와 대림시놀 공급을 위한 최종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 해당 첨가제의 브랜드는 '대림시놀'을 통해 생산능력을 3만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수 국가산단에 400억 투자 年5000t 신규공장 건설  
브랜드명 '대림시놀'...친환경·고성능화 수요 대응**

(DaelimSynol)로 정해졌다. 시놀(Synol)은 합성유(Synthetic Oil)의 줄임말이다.

윤활유 첨가제는 자동차나 각종 산업용 기계설비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점도조절과 품질 향상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대림시놀은 저온에서 윤활유의 흐름을 개선시켜 기계설비 운행 품질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윤활유 교환 주기도 크게 늘리는 기능을 한다. 최근 전세계에서 확산중인 친환경 정책과 기계설비의 고성능화 요구하는 기업 수요에 대응할 전망이다.

대림산업은 5년간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공정 및 촉매기술을 지문화하는 성공했으며, 미국 및 유럽의 주요 윤활유 제조사에서 약 2년간 시제품 평가기간을 거쳤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위생협회에서 H1등급(식품 접촉 가능) 인증을 획득해 대형 식품 가공 기계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림산업은 이번 공장 설립을

를 계획 중이다. 향후에는 대림시놀 공장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3만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윤활유 첨가제 분야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판매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략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폴리부텐 생산회사인 대림은 이번 투자로 폴리부텐과 윤활유 첨가제 사업에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존 경쟁제품 대비 품질과 가격에서 충분한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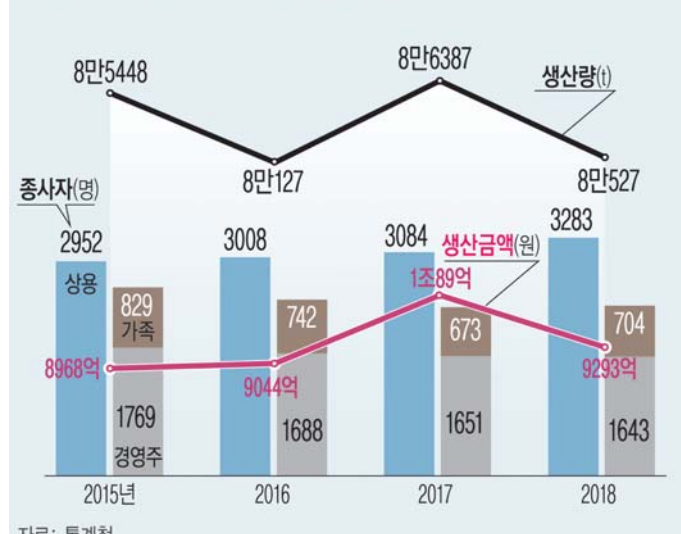
한편 대림은 프로젝트의 발굴, 기획, 자본투자, 금융조달, 건설, 운영 및 관리까지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글로벌 디벨로퍼 사업을 적극 육성 중이다. 올해 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8만톤 규모의 폴리부텐 공장 건설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뉴스스

## 폭염·한파에 안전성 문제...양식 광어 생산 4000t 감소

**통계청, 2018년 어류양식 동향조사 결과**

### 어류양식 종사자 및 생산량 추이



지난해 양식 광어 생산량이 4000톤(t)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여름·겨울철 고(高)·저(低) 수온이 어류 성장에 악영향을 미쳐 출하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 양식 광어에서는 수온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 수요도 감소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어류양식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어류양식 생산량은 8만5271t다. 전년(8만6387t)보다 5800(6.8%) 줄어들었다. 광어 등 납치류(3368t)의 감소

량이 가장 많았다. 참돔(1703t), 농어류(1022t), 송어류(446t)도 많이 줄었다. 이에 따라 생산금액도 796억원(7.9%) 감소한 92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어류 출하 부진의 영향이다. 한 통계청 관계자는 "폭염 및 한파로 수온의 높낮이 차가 커지면 어류가 스트레스를 받아 잘 성장하지 못한다"면서 "이로 인한 출하 부진과 일부 지역 양식 광어에서 수온이 검출되는 등 수요 감소를 부를 수 있는 활어 안전성 문제가 겹쳤다"고 설명했다.

생산량과 생산금액이 감소하면서 어류양식업 경영체 수도 소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어류양식업 경영체는 1643개로 전년(1651개)

보다 8개(0.5%) 감소했다.

생산량과 생산금액, 어류양식업 경영체가 줄어든 반면 어류양식 종사자 수는 늘었다. 지난해 종사자 수는 5630명으로 전년(5408명)보다 222명(4.1%) 증가했다. 가족종사자가 31명(4.6%), 상용종사자가 199명(6.9%) 많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가족종사자의 경우 전남(23명)에서, 상용종사자는 제주(103명)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어류양식업 경영체의 양식 규모가 커진 영향이다. 김종철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사무관은 "최근 지속된 폭염 및 한파로 어류가 폐사하는 등 병해가 생겼다"면서 "고밀도 양식을 피하려는 양식어가(漁家)들이 단위면적당 마릿수를 줄이려 보니 관리업무량이 증가해 종사자 수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어류 출하가 부진하면서 양식 마릿수는 4.4%(1927만마리) 증가했다. 적체물량이 증가한 탓에 입식(어린 물고기를 새로 양식장에 푸는 일) 마릿수는 4.4%(1660만마리) 감소했다. 양식 마릿수가 증가하면서 사료를 준 양은 4.1%(2만3784t) 늘었다.

인원규 통계청 농어업동향과장은 "폭염 및 한파로 어류들이 대량 폐사하고 재고 개념인 양식 마릿수도 늘어났다"면서 "반면 어류양식업 종사자 수는 늘어나는 등 양식어가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호박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에 걸린 오이(진단키트).

##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2만점 보급

농촌진흥청은 오는 20일과 2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워크숍을 통해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총 15종, 2만여점을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현장에서 2분 내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휴대용 진단 도구다. 식물체에서 탄 잎을 으갠 후 그 즙액을 떨어뜨려 확인하는 방식이다. 수박과 오이 멜론 고추 토마토 등 채소작물 총 10품목에 활용할 수 있다.

진단키트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도 농업기술원으로 분양하며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에 관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다. 농가는 이후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도 농업기술원에 문의해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뉴스스

지역광고·이벤트·정편지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